

실패 마인드셋은 세대 간 전승되는가?: 어머니의 행복감과 개방적 의사소통의 이중매개효과*

정 지 유¹⁾ 김 한 샘²⁾ 양 수 진[†]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실패 마인드셋과 자녀의 실패 마인드셋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행복과 어머니-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6개 중학교의 중학생 1,2학년 남녀($M=13.9$ 세, $SD=0.548$)와 이들과 짝지어진 어머니($M=44.9$ 세, $SD=3.875$) 270쌍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고, SPSS와 PROCESS macro 6번 모형을 이용하여 모형을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실패 마인드셋과 자녀의 실패 마인드셋 간의 직접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어머니-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의 단순매개효과도 유의하였으나, 어머니의 행복의 단순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실패 마인드셋이 어머니의 행복과 어머니-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을 순차적으로 거쳐 자녀의 실패 마인드셋에 이르는 이중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패에 대한 어머니의 성장적 마인드셋이 어머니의 긍정 정서와 긍정적 양육 기술을 증진시켜 자녀의 신념체계 구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념의 차원인 실패 마인드셋의 세대 간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며, 실패 마인드셋 발달 기제의 확인을 통해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 발달의 개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 실패 마인드셋 전승, 행복, 어머니-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


* 이 연구는 2021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졸업생

2)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생

† 교신저자: 양수진,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073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el: 02-3277-4053, E-mail: sujinyang@ewha.ac.kr

 Copyright ©2022,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해가는 과도기로 인지적,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Feldman & Elliot, 1990), 주변 환경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다. 특히, 한국의 교육과정에서 중학교는 입시와 직결되는 내신이 시작되고 학습 내용의 깊이와 범위, 난이도가 급격히 변해(김숙인, 신태섭, 2020) 학생들의 학업적 실패 경험이 도드라지는 시기이다. 하지만, 수많은 평가와 도전적 상황에서 마주하는 실패에 대한 인식과 반응은 개인마다 상이할 수 있다(Dweck, 2006). 만일 실패에 대한 믿음과 신념에 따라 성취와 정서, 행동양식 및 삶에 대한 해석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실패에 대한 인식의 틀을 이해하고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회화되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패에 대한 인식과 신념에 주목하고, 어머니와 자녀 간 실패에 대한 마인드셋이 전승될 수 있는지, 또한 어떠한 기제가 작용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개인의 신념 및 인식 체계는 자신과 주변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 예측하게 할 수 있으며 개인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77; Dweck & Leggett, 1988). 대표적인 내재적 신념 체계로 마인드셋(Mindset)이 있는데, 마인드셋은 학습, 노력, 도전 및 평가를 포함하는 상황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Hong et al., 1999) 의미를 부여하는 틀을 제공한다(이수경, 2016; 이정립, 2016). 마인드셋(Mindset)은 지능의 가변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Bandura & Dweck, 1985)에서 제안된 개념으로, 지능이나 성격 등 개인 특성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지니는 신념이기도 하다. Dweck(2006)은 마인드셋을 지능의 가변성 여부에 따라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으로 분류하였는데,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을 가진 사람들은 지능이 유동적이며 노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고정 마인드셋(Fixed mindset)을 가진 사람들은 지능을 고정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믿는다(Blackwell, Trzesniewski, & Dweck, 2007; Claro, Paunesku, & Dweck, 2016)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 성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개인의 행동 방향, 인지적 영향을 미치는 마인드셋(Dweck, 2006)은 직면하는 난관에 대한 개인의 대처 방식을 결정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학업 성취와 동기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임혜정, 이기혜, 2019; Blackwell et al, 2007; 박준수, 2017). 성장적 열정 마인드셋은 개인의 진로적응성에 보다 적응적인 영향을 미친다(진예민, 김다혜, 양수진, 2021). 아울러 Blackwell과 Dweck(2007)에 따르면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며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습자의 경우 요구되는 학업 수준이 상대적으로 적은 초등학교에서는 좌절을 겪지 않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요구되는 학업 수준이 커지는 중학교 시기에서는 큰 좌절을 겪을 수 있다. 또한, Henderson과 Dweck(1990)의 연구에서 지능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초등학생 6학년 집단은 1년 후 학업성취 수준의 감소를 나타내었던 반면 지능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집단은 학업 성취수준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라는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은 타인에게 자신의 유능함을 입증하려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며(Dweck & Leggett, 1988; Haimovitz, Wormington, & Corpus, 2011) 실패 후 좌절 지속시간이 길고 실패를 숨기려는 방어적 태도를 보인다(Brooks, Brooks & Goldstein, 2012; Diener & Dweck, 1978). 반면, 지능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은 역경을 배움의 기회이자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Zeng, Hou & Peng, 2016; Dweck, 2006). 한편, 현재 대다수의 마인드셋 연구는 지능의 가변성에 대한 신념에 초점을 맞춰 왔으며, 인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념체계를 단지 인지적 영역에만 한정시켜 왔다(박서단, 2020).

Dweck(2000)이 제시한 마인드셋에 기반하여 발전한 개념인 실패 마인드셋은 실패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신념으로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failure-is-enhancing mindset)과 퇴보적 실패 마인드셋(failure-is-debilitating mindset)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Haimovitz와 Dweck의 연구(2016)에 따르면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가 반드시 부정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실패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퇴보적 실패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는 개인의 학습과 생산성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 상황을 피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긴다. 지능 마인드셋과 달리 개인의 인지적 영역에 대한 신념체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패 상황에 대한 개인의 신념체계은 실패 마인드셋은 학습상황에서 지능 마인드셋보다 더 가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자녀의 지능마인드셋을 직접 예측하는 것은 부모의 지능마인드셋이 아닌 실패 마인드셋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Haimovitz & Dweck, 2016).

실패 마인드셋은 여러 영역에서 개인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퇴보적 실패 마인드셋은 특정 상황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과 부적상관을 보였다(박서단, 2020). 또한, 실패 마인드셋은 성취목표지향성과도 관련되는데, 이는 실패를 성장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들은 가시적인 수행의 결과보다 과정에서 의미를 찾고 배운 바를 중시하기 때문이다(Haimovitz, Dweck, 2016). 실패에 대한 인식과 신념은 실패로 인해 경험하는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안태영, 2020). 예를 들어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시안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에만 매몰되기보다는 긍정적이고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한다. 이는 부정 정서를 낮추고 긍정 정서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은 실패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인 실패내성을 예측하는데, 이는 자신의 실패를 개인의 성장적인 경험으로 믿을수록 개인의 실패에 대한 건설적인 반응 경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은 실패에 대해 긍정적 인식과 믿음을 가지도록 하여 개인이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좌절 경험을 의미 있게 견뎌내고 열정과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는 특성인 그릿(Grit)을 발휘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안태영, 2020).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이 자기효능감, 실패내성, 그릿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패 마인드셋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실패 상황에서 마주하는 실패에 대한 인식과 반응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점(Dweck, 2006)에서 청소년의 실패 마인드셋 역시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차를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환경적 요인에 주목해볼 수 있는데,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이론(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에 따르면, 인간은 독립

적 유기체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해나가는 존재이다. 그리고 개인을 이루는 환경 요인에는 부모, 교사, 형제, 또래 등이 있을 수 있다. 초기 청소년기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라는 기존의 애착 대상과의 상호작용이 감소하지만, 부모와의 관계는 여전히 이들의 내적 자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Bowlby, 1988; Dweck & London, 200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Paterson, Field, & Pryor, 1995), 또래 애착보다 부모 애착의 질이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결과 역시 부모가 청소년의 내적 작동 모델에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Bowlby의 이론을 지지한다. 아울러 자신의 미래의 성취를 위해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의미 있는 타인으로 청소년 집단에서 부모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연구(박영신, 김의철, , 탁수연, 2005)는 이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실패 마인드셋에 기여하는 다양한 환경 요인 중 양육자 요인에 주목해볼 수 있다. 특히 양육자가 지니는 개인 내적인 신념은 발달기 자녀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부모의 실패 마인드셋이 자녀의 지능 마인드셋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 결과(Haimovitz, Dweck, 2016)에 따르면, 부모의 지능 마인드셋과 다르게 실패 마인드셋은 양육 상황에서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자녀의 마인드셋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서단, 안태영, 양수진, 2020). 이에 대한 뒷받침으로 Tao, Li와 Wu는(2021) 최근에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실패 마인드셋이 퇴보적일수록 자녀 역시 퇴보적 실패 마인드셋을 가질 경향이 높아 부모-자녀 간 마인드셋이 전승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여성가족부, 2021), 청소년 자녀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대화를 하며(아버지-47.3%; 어머니-71.9%), 어머니와의 관계에 더 높은 만족감(아버지-69.4%; 어머니-82.3%)을 보고했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가 지니는 자녀의 학업적 능력에 대한 신념은 자녀가 본인의 학업 유능성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Pomerantz & Dong, 2006). 이는 청소년의 마인드셋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력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도 어머니가 가진 실패에 대한 인식과 신념에 주목해 어머니-자녀 간 동일한 실패 마인드셋이 전승되는 기제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어머니와 자녀 간 실패 마인드셋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첫 번째 기제로 어머니의 행복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행복은 단일 요인이 아닌 다면적 구성체로(Diener & Scollon, 2003), 행복에 대한 평가는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결혼, 직장, 삶에 대한 만족)와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정서(긍정 정서의 존재와 부정정서의 부재)로 세분화되어 주관적으로 평가된다. 즉 개인은 인지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며, 빈번한 긍정 정서를 경험하고, 낮은 빈도의 부정 정서를 경험할 때 행복을 느낀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외적, 상황적 요인보다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나 행복에 대한 긍정적 신념 등이 더욱 행복을 잘 설명함을 강조하고 있다(구재선, 서은국, 2011). 이는 개인의 내적 속성이 외적 요인이나 상황보다 더 많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개인 내적 요인 중에서도 신념체계(Belief system)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행복 그리고 그와 관련된 건강 변인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미래에 대해 개인이 지니는 신념인 낙관성(Optimism)은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한 요인이었으며(Scheier & Carver, 1987),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평가이자 신념인 성장적 스트레스 마인드셋은 스트레스로 인해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완충 효과를 지닌다는 연구(Crum, Salovey, & Achor, 2013)도 이를 뒷받침한다. 나아가 지능에 대한 성장적 마인드셋은 행복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김명준, 2020)와 성장적 스트레스 마인드셋이 개인의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켰다는 Crum, Akinola, Martin과 Fath(2017)의 실험연구(2017)도 개인의 특성이 변화 가능하다는 신념이 행복을 예측하는 심리적 요인임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실패 마인드셋 개념은 상기한 연구 결과에서의 마인드셋과는 독립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 차별점이 존재한다. 예컨대, 스트레스 마인드셋은 실패 마인드셋과 달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신념체계이며, 지능 마인드셋은 실패 마인드셋과 달리 보다 인지적 영역에 대한 개인의 신념체계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하지만 독립된 개념의 마인드셋 연구를 통한 추론임을 감안하더라도, 실패에 대한 개인의 관점이 실패 후 정서와 관련된다는 선행연구(Haimovitz & Dweck, 2016)를 토대로 추론할 때, 개인의 실패 마인드셋은 행복을 예측하는 하나의 심리 내적 요인일 수 있다. 일례로 박서단(2020)의 연구는 퇴보적 실패 마인드셋이 행복을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를 부정적으로 예측함을 보여주었다.

어머니의 행복은 어머니의 다른 특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선행연구는 어머니의 행복이 양육 효능감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전은옥, 최나야, 2013),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행동과도 정적 상관을 보임을(김혜숙, 고재홍, 2018) 밝혔다. 또한, 어머니의 행복은 양육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정윤주, 김은영, 2021). 나아가 어머니의 행복은 어머니 개인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어머니의 행복은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한희승, 이정화, 2012), 자녀의 생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최아론, 이영순, 2015), 영아의 긍정적 사회정서 행동(김유미, 김정원, 2011)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렇듯 어머니 개인의 행복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자녀의 긍정적 신념체계의 발달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머니의 행복과 자녀 개인의 긍정적 신념체계에 대한 직접적인 실증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추론 가능하다. 한 개인의 긍정 정서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레퍼토리를 확장시키며, 신체, 사회, 지적, 심리적 자원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Fredrickson, 2001), 어머니의 행복은 어머니 개인의 내적 자원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확장된 내적자원 중의 하나로서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Emotional Availability)은 자녀의 신념체계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의 마음이론 발달에 대한 종단연구(Licata & Sodian, 2016)에 따르면 56쌍의 어머니-아동 간 상호작용을 연구한 결과 어머니의 높은 정서적 가용성에 따른 어머니와 아동 간의 높은 정서적 연결성(Emotional Connectedness)은 아동의 마음이론(Theory of Mind) 발달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행복은 개인의 내적자원 중 하

나인 정서적 가용성을 확장시키고, 이는 아동의 신념체계의 인지적 발달 또한 발달시킬 수 있다고 추론 가능하다.

어머니와 자녀 간 실패 마인드셋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두 번째 기제로는 어머니-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은 인지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기로, 부모와 문제를 논의하고 토론하며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는 경향을 보인다(Larson et al., 1996). 특히 청소년 시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여러 스트레스 상황에서 청소년의 사회성, 도덕성, 문제 행동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Levin & Currie, 2010). 따라서, 청소년기에 자녀가 과업을 마주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패와 성공에 대해 형성하게 되는 신념은 양육 환경에서 양육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따라 그 발달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부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 자녀 간 감정 표현과 정보 교환이 솔직하고 자유로우며 의사소통을 통한 이해와 만족의 정도가 높음을 말한다(Barnes & Olson, 1985).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 중 개방형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원만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인 반면, 문제형 의사소통은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고 우울감을 높여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유발한다(유선희, 함경애, 2014).

Moorman와 Pomerantz의 연구(2010)에 따르면 부모가 보이는 구체적인 양육행동 기술은 그들이 지닌 신념과 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자녀의 지능에 대해 성장적인 마인드셋을 가질 경우 아동의 학습 과정에서 참여하는 부모의 훈육 행동의 형태는 더욱 구조적이

었다. 반면,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아동에 대한 능력 마인드셋이 고정적일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결과 중심적이고 통제적이며 부정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uenks, Miele, Ramani, Stapleton와 Rowe의 연구(2015)에 따르면 부모가 자신들의 능력에 대해 고정적인 마인드셋을 지닐수록, 그들은 자녀에게 통제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양육 행동을 보였으며, 자율성을 지지하고 유능감(mastery oriented)을 고취하는 양육행동은 더 적게 보였다. 이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실패 마인드셋이 성장적일수록, 어머니-자녀 간에 보이는 개방적 의사소통의 수준은 더욱 높을 것이라고 추론 가능하다.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다양한 결과를 예측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명순과 김종운의 연구(2014)에서도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이 스트레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며,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은 회복탄력성 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오현정(2008)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일수록 자녀의 자아탄력성은 발달한다.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 형태는 개인의 신념과 도전과제 상황에서의 동기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Gunderson et al., 2013; Mueller & Dweck, 1998). Gunderson 등(2013)의 3살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노력과 문제 접근 전략에 대해 부모의 칭찬을 받은 유아일수록 이후 초등학교 시기 더 높은 수준의 증진적인 동기를 지녔으며, 성장적인 지능 마인드셋을 지녔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실패 마인드셋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이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어머니의 행복과 어머니-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순차적인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가정해 보았다. 사회인지이론(Bandura, 1986)에 따르면, 아동의 행동은 간접적인 대리 경험의 영향을 받게 되며,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반응을 눈으로 관찰하면서 미래의 행동을 정한다.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을 가진 어머니는 구체적인 실패 상황에서도 수행 결과보다 과정에서 배운 바를 중시함에 따라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것이다. 긍정적 정서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레퍼토리를 확장시킬 뿐 아니라 신체, 사회, 지적, 심리적 자원을 더욱 확장시킨다(Fredrickson, 2001). 따라서 어머니가 지각한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보이는 구체적인 양육행동 기술은 더욱 긍정적일 수 있으며, 나아가 어머니-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수준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행복한 상태에 있는 어머니는 부모는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나누며(한명숙, 2012)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보임으로써 자녀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다(김민정, 2009)는 연구는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김주리와 김남희의 연구(2014)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행복이 높을수록 자녀의 전반적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합리적 기준과 이유로 자녀를 일관된 방식으로 지도하며 자녀를 존중하고 수용해주는 양육 태도를 보이며 어머니의 행복이 낮을수록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렇듯 어머니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은 자신의 긍정적 정서의 확장 및 이에 따라 가시화된 구체적인 양육행

동기술을 통해 자녀의 수행에 대한 반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을 지닌 어머니는 전술한 기제를 통해 자녀의 실패 상황에도 과정에 주목하여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자녀의 실패에 대한 신념 체계는 부모의 신념에 대한 관찰학습(Modeling)을 통해 사회화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어머니가 지닌 실패에 대한 마인드셋이 성장적일수록 높은 행복 수준을 예측하고, 이는 양육 상황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양육 기술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어머니-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과 같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 행동은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 발달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은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을 설명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과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행복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과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의 관계에서 어머니-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어머니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과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행복과 (어머니가 지각한) 어머니-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의 이중매개 효과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서울시 소재 6개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1, 2학년 329명과 그들의 어머니 329명을 대상으로 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은 학교 내에서 교사의 지도 하에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어머니는 자녀 편에 부모용 설문지 전달받아 작성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9쌍과 어머니의 응답이 아닌 40쌍을 제외하여 총 270쌍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중학생 참가자의 평균연령은 만 13.39세 ($SD=.548$)이고 학년은 1학년 181명(67%), 2학년 89명(33%)이었다. 남학생은 124명(45.93%), 여학생은 146명(54.07%)이었다. 한편,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만 44.88세($SD=3.875$)이었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183명[67.8%])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고졸(56명[20.7%]), 기타(26명[9.6%]), 중졸(3명[1.1%]), 초졸(2명[0.7%])의 순이었다. 가계 수입은 300만원~500만원 미만(79명[29.3%])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500만원~700만원 미만(63명[23.3%]), 100만원~300만원 미만(43명[15.9%]), 700만원~900만원 미만(40명[14.8%]), 900만원 이상(34명[12.6%]), 100만원 미만(6명[2.2%])의 순이었다.

측정도구

실패 마인드셋 척도

어머니와 중학생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을 측정하기 위해, Haimovitz와 Dweck(2016)이 초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한 실패 마인드셋 척도(Failure Mind-set Scale)를 번안한 문

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을 측정하는 3문항(예: “실패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활용되어야 한다.”)과 퇴보적 실패 마인드셋을 측정하는 3문항(예: “실패는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방지되어야 한다.”)의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Likert 6점 척도). 이 척도는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고자 퇴보적 실패 마인드셋 3문항을 역채점하여 평균 점수로써 변인을 구성한 1요인 구조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실패에 대한 개인의 성장적 관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Haimovitz와 Dweck(2016)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자녀 .808, 어머니 .823이었다.

단축형 행복 척도

어머니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한 단축형 행복척도(COMOSWB)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삶의 만족도 문항, 긍정 정서 문항, 부정 정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3문항씩 총 9문항이다(Likert 7점 척도). 이 척도는 삶의 만족도는 ‘생활의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집단적 측면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긍정 정서는 ‘즐거움, 행복한, 편안한’ 정도, 부정 정서는 ‘짜증나는, 부정적인, 무기력한’ 정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행복은 삶의 만족도 3문항과 긍정 정서 3문항의 총점에서 부정 정서 3문항의 총점을 뺀 점수로 계산하며(Diener, 1984; Emmons & Diener, 1986),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행복 전체의 내적일치도는 .822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삶의 만족 .863, 긍정 정서 .880, 부정 정서 .746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어머니-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Barnes와 Olsen(1982)이 만든 부모-자녀 의사소통 검사인 PACS(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를 번안하여 유지연(1998)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방형 의사소통 10문항(예: “자녀는 나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준다.”)과 폐쇄형 의사소통 10문항(예: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자주 침묵을 지킨다.”)으로 구성되어 있다(Likert 5점 척도). 개방형 의사소통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사이의 대화에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함을 의미하고, 폐쇄형 의사소통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의 대화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 문항만을 사용하였고, 해당 문항들 간의 내적일치도는 .883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5.0과 PROCESS Macro (v.3.5)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SPSS 25.0을 사용하여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 검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상관분석을 진행하여 주요 변인 간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둘째, PROCESS Macro(v.3.5) Model 6번 모형(Hayes, 2017)을 통해 어머니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 어머니의 행복, 어머니-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이 포함된 이중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셋째, 표본 수를 10,000개로 하는 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여, 신뢰구간 95%에서 단순 매개와 순차적 이중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Shrout & Bolger, 2002)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자료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 10 이하여야 하는데(Kline, 2005),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은 모두 위 기준에 따라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는 어머니의 행복과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_s = .157 \sim .391$, $p_s < .01$).

매개효과 분석

Hayes(2017)가 제시한 PROCESS Macro 6번 모형을 이용하여, 어머니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과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행복과 어머니-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의 단순매개 및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각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는 <표 2>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Preacher & Hayes, 2004).

먼저, 어머니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이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의 증가로 가는 총효과($B = .183$, 95% CI [.044, .323])와 직접효과($B = .148$, 95% CI [.008, .289])는 모두 유의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과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행복의 단순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B = -.005$, 95% CI [-.036, .022]), 어머니-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의 단

표 1. 주요 변인 간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N =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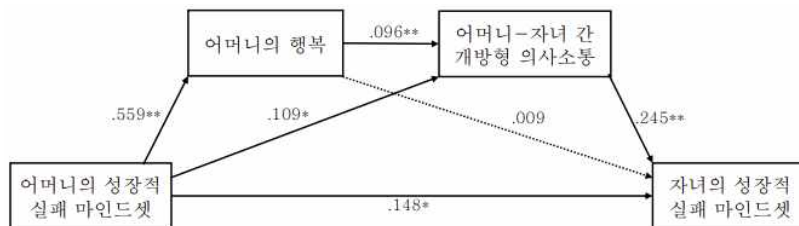
	1	2	3	4
1. 모어머니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	-	.157*	.163**	.183**
2.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		-	.068	.199*
3. 모어머니의 행복			-	.391**
4. 모어머니-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				-
평균	4.56	4.39	6.38	3.82
표준편차	0.71	0.83	2.45	0.63
왜도	-.62	-.42	-.17	-.23
첨도	.61	.34	-.10	.83

*** $p < .001$, ** $p < .01$, * $p < .05$

표 2. 어머니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과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행복과 어머니-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의 이중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검증(N = 270, Bootstrap = 10,000)

경로	B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총효과(모어머니의 성장적 실패마인드셋 → 자녀의 성장적 실패마인드셋)	.183*	.071	.044	.323
직접효과(모어머니의 성장적 실패마인드셋 → 자녀의 성장적 실패마인드셋)	.148*	.071	.008	.289
모어머니의 성장적 실패마인드셋 → 모어머니의 행복 → 자녀의 성장적 실패마인드셋	-.005	.014	-.036	.022
모어머니의 성장적 실패마인드셋 → 모어머니-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 → 자녀의 성장적 실패마인드셋	.027*	.017	.002	.065
모어머니의 성장적 실패마인드셋 → 모어머니의 행복 → 모어머니-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 → 자녀의 성장적 실패마인드셋	.013*	.008	.002	.031

*** $p < .001$, ** $p < .01$, * $p < .05$



주. 그림의 계수는 모두 표준화된 수치임, ** $p < .01$, * $p < .05$

그림1. 어머니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과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행복과 어머니-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의 이중매개모형

순매개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 = .027$, 95% CI [.002, .065]).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이 어머니의 행복과 어머니-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의 증가에 이르는 이중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13$, 95% CI [.002, .031])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중학생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이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어머니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제를 통해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으로 전승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머니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이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행복과 어머니-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단일 및 이중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와 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은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즉, 어머니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이 높을수록 자녀 또한 실패를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개인 내적 요인이자 암묵적인 신념체계도 자녀의 신념체계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능에 대한 암묵적 이론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을 직면해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적 지능 마인드셋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Jacobs & Eccles, 1992; 조진숙, 2020). 이와 유사하게, 부모가 실패에 대한 성장적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결과 중심의 평가보다는 자녀가 기울인 노력에 대해 지지하고 칭찬하는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실패를 겪어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행동을 촉진하게 된다(Mueller & Dweck, 1998). 바로 이러한 과정의 반복이 자녀가 부모와 같은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을 형성하게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양육자의 신념이 구체적인 양육행동으로 나타나면 자녀도 모방학습을 통해 동일한 신념이나 가치체계를 전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패에 마주하는 자녀의 신념체계보다 긍정적이고 성장적인 방향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자녀 본인뿐 아니라 양육자의 실패에 대한 마인드셋의 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행복은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과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행복의 매개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행복이 어머니 개인의 내적 자원 중 하나인 정서적 가용성(Emotional Availability)를 확장시킴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제를 통해서야 자녀의 신념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개인의 확장된 정서적 가용성이 타인의 인지적 신념체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며, 자녀의 신념체계의 형성에는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뿐 아니라 구체적인 양육 행동 기술의 구현이 또 다른 기제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어머니-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어머니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과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의 관계를 부분매개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이 어머니-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을 높이고, 이로 인해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을 높임을 나타낸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감정, 생각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수용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이다(정은선, 정종원, 2017). 이러한 점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Orrego & Redriguez, 2001). 부모의 성장적 지능 마인드셋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되어 있으며(Levinthal, Kuusisto, & Tirri, 2021)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이선행, 최자은, 2019)와 합리적 양육 행동(김다인, 안도희, 2019)이 자녀의 성장적 지능 마인드셋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로 추론해보았을 때 긍정적인 양육 행동인 어머니-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이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어머니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과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행복과 어머니-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중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이 높을수록 이는 어머니의 행복을 증가시키고, 어머니의 높은 행복은 어머니-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며, 이는 나아가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을 증진시킨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행복이 높을수록 자녀가 도움을 청하면 문제해결을 돕는 등 자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기존 연구(고예진, 2011) 및

어머니가 행복하면 자녀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며 자녀에게 긍정적인 정서적, 심리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김유미, 김정원, 2011)와 맥락을 같이 한다. 긍정 정서와 긍정적 재해석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조은혜, 이동귀, 배병훈, 201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패 경험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성장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어머니의 신념과 긍정적인 재해석은 부정적 정서보다는 긍정적 정서를 유도할 것이다. 긍정적 정서의 확장-축적 이론에 따라 긍정정서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와 보다 더 개방적이고 온정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실패에 대한 자녀의 건설적인 신념 형성을 도울 수 있다. 정리하면, 실패에 대한 성장적인 어머니의 마인드셋은 어머니 개인의 긍정 정서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긍정정서의 확장이론을 통해 긍정적 양육의 실제로 나타나게 되고, 자녀의 신념체계 구축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 즉 실패 마인드셋을 탐구하여 실패의 또 다른 측면에 주목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실패 경험에 건설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강조하며(Kapur & Bielaczyc, 2012; Manalo & Kapur, 2019) 실패공포와 실패내성 등 실패 이후 반응성에 대한 연구에만 초점을 맞춰왔다(Conroy et al., 2002; Clifford, Kim, & McDonald, 1988; Clifford, Fick, & Bennett, 1991). 하지만, 실패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학습자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Bartels & Herman, 2011; Kapur, 2008;

Hicks, Liu & Heyman, 2015),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정의되는 실패 마인드셋은 실패 공포와 실패내성 만큼이나 중요한 변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패 마인드셋의 영향력을 탐구하고자 했으며 특히 어머니가 가진 실패에 대한 관점이 어머니 본인의 행복과 구체적인 자녀 양육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세대 간 전승될 수 있는지 그 과정과 기제를 밝혔다.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실패 마인드셋은 많은 연구가 이뤄진 바 없으며, 주로 지능 마인드셋이 학업 성취, 동기부여, 우울과 사회적 불안 등 결과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으로 주로 연구되어 왔다(Muller & Dweck, 1998; Hong et al., 1999). 이에 실패 마인드셋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실패 마인드셋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Tao 등(2021)의 연구에서 대학생 자녀의 실패 마인드셋에 부모의 실패 마인드셋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된 바 있으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한 연구로, 그 기제에 대한 추가적 연구는 이뤄진 바 없다. 아울러 대학생 시기의 자녀에 주목한 Tao 등(2021)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주변의 환경요인, 그 중에서도 부모의 행동 데이터에 따라 발달에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중학생 시기의 자녀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의 실패 마인드셋이 주변의 환경 요인- 양육자 요인-에 따라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시기의 실패 마인드셋은 양육자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나아가 중학생 시기의 실패에 대한 신념이 양

육자인 어머니의 신념과 그에 따른 정서, 정서의 확장에 따라 구현되는 구체적 행동 기술에 의해 발달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서로 독립적으로 보이는 개인 내적 신념체계 간에도 긍정 정서와 구체적 양육행동 기술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기제가 양육자 요인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를 통해 부모 개입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지각하여 응답한 응답치를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유형에 대한 어머니와 자녀가 지각하는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각기 다른 발달 단계에 위치한 가족원 간의 지각은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일 수 있으며, 특히 세대가 다른 부모와 자녀 간의 지각에는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박진희, 2014). 특히 많은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에 있어 부모의 지각과 자녀의 지각에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어머니가 자녀들에 비해 가족의 의사소통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Guilamo-Ramos et al., 2006) 자녀가 지각한 개방적 의사소통 응답의 분석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다소 한정된 표본으로 인해 다양한 기초통계 변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 수준(상, 중, 하)에 따른 주요 변인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성장적 실패마인드셋의 발달 및 전승 과정에 가정경제수준이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이라기보다는 본 연구의 표본 상 다소 편중된

가정경제수준 분포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상[27.9%], 중[53.6%], 하[18.5%]). 따라서 다양한 가정경제수준을 반영한 표본 수집을 통해 후속 연구에서는 가정경제 수준 및 다양한 기초통계변인을 고려한 발달 기제의 검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의 발달 기제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체계 중에서도 양육자 요인을 주목하였다는 의의가 있지만, 양육자 요인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를 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즉, 어머니만큼 아버지의 요인 역시 자녀의 인지 및 신념 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일 수 있기에(김고은, 조남익, 2017), 후속 연구를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요인을 모두 포함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의 기제를 밝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기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론적 근거에 따른 추론이 주를 이룬다는 한계점이 있다. 실패마인드셋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본 연구모형의 기제를 주로 간접적 근거에 따라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한계점은 실패 마인드셋의 발달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직접적인 경로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본 연구는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이 발달하는 기제를 검증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특히, 이전에는 많이 탐색된 바 없던 어머니의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에 주목하여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이 어머니와 자녀 간 어떻게 전승이 되는지를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 및 구체적 양육기술로 기제를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고예진 (2011).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재선, 서은국 (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다?.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25(2), 143-166.
- 김고은, 조남익 (2017).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7), 191-213.
- 김다인, 안도희. (2019). 부모의 합리적 설명 양육행동 수준에 따른 자녀의 성장신념과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추이 및 종단적 관계. 교육문화연구, 25(2), 273-294.
- 김명준 (2020). 대학생의 성장마인드셋과 행복감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09). 어머니 행복감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또래유능성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인, 신태섭 (2020). 중학생의 마인드셋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 여부에 따른 다집단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1(3), 697-726.
- 김유미, 김정원 (2011). 어머니의 행복감과 영아의 긍정적 사회 정서행동 및 외현적, 내면적 문제 행동 간의 관계.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2(1), 285-302.
- 김주리, 김남희 (2014).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감 행복감 간 관계. 생애학회지, 4(1), 19-32.
- 김혜숙, 고재홍 (2018). 어머니의 지혜와 자녀의 행복: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복지상당교육연구, 7(1), 355-376.

- 박서단 (2020). 실패마인드셋 척도(Failure Mindset Scale)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5). 청소년과 부모의 실패와 미래성취 의식을 통해 본 한국인의 성취관련 토착심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2),73-108.
- 박준수 (2017). 귀인피드백이 마인드셋(mindset), 그릿(grit), 자기 조절력에 따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희 (2014). 부모와 자녀의 지각차이 연구: 가족사정척도(FAD)와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PACS)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1), 103-124.
- 박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 (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6-114.
- 여성가족부 (2021).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안태영 (2020). 대학생의 성장적 실패마인드셋과 그릿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태영, 박서단, 양수진 (2020). 그릿은 어떻게 길러지고 사회화되는가? 지각된 부모의 실패마인드셋 및 부모의 학업기대, 그리고 대학생의 실패내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3(2), 103-121.
- 오현정 (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 탄력성.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선희, 함경애 (2014).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2(2), 421-439.
- 유지연 (1998). 정신장애인 가족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미애, 오윤자 (2005). 아버지-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아동교육, 14(1), 115-129.
- 이명순, 김종운 (2014). 아동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학교 적응의 관계에서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2(1), 335-356.
- 이선형, 최자은 (2019). 학령기 아동의 그릿, 성장 마인드셋, 기본심리욕구,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 구조분석. 가정과삶의질연구, 37(3), 155-168.
- 이수경 (2016). 성인 초기의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과 그릿(Grit)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림 (2016). 통제소재, 마인드셋, 그릿,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혜정, 이기혜 (2019). 중학생의 성장신념 영향요인 분석: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7(4), 127-155.
- 전은옥, 최나야 (2013).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0(82), 103-126.
- 정윤주, 김은영 (2021). 어머니의 행복감,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 관계에서 양육 효능감의 매개효과. 사회복지경영연구, 8(1), 111-132.
- 정은선, 정종원 (2017). 초등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사-학생 의사소통과 학업성취의 관계: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매개효과. 교육문제연구, 30(3), 77-102.
- 조진숙 (2020). 청소년의 성장 마인드셋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에 대한 연구. 광운대학

- 교 박사학위논문.
- 조은혜, 이동귀, 배병훈 (2012).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과정에 따른 진로성숙도: 긍정정서와 긍정적 재해석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5), 2049-2065.
- 지효숙 (2007).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와의 친밀도 관계 연구. *한국교육학회*, 20(1), 153-170.
- 진예민, 김다혜, 양수진 (2021).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그릿-열정 마인드셋 유형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분석: 집단별 심리특성 및 진로적응성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2), 167-189.
- 최아론, 이영순 (2015). 어머니의 행복감과 초등학교 자녀의 행복감 관계에서 자녀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337-351.
- 한명숙 (2012). 어머니의 행복감 및 자아분화와 어머니-자녀 상호작용과의 관계. *생태유아교육연구*, 11(3), 57-76.
- 한희승, 이정화 (2012). 어머니의 행복이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논총*, 30, 355-378.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 Bandura, M., & Dweck, C. S. (1985). The relationship of conceptions of intelligence and achievement goals to achievement-related cognition, affect and behavior.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Barnes, H. L.,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In D. H. Olson et al., *Family inventories: Inventories used in a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arnes, H. L.,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Bartels, J. M., & Herman, W. E. (2011). Fear of Failure, Self-Handicapping, and Negative Emotions in Response to Failure. *Online Submission*.
- Blackwell, L., Trzesniewski, K., & Dweck, C. S. (2007).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predict achievement across an adolescent transition: A longitudinal study and an intervention. *Child Development*, 78, 246-263.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
- Bronfenbrenner, U. (1979). Contexts of child rearing: Problems and prospects. *American Psychologist*, 34(10), 844-850.
- Brooks, R., Brooks, S., & Goldstein, S. (2012). The power of mindsets: Nurturing engagement motivation, and resilience in students. *Handbook of research on student engagement*, 541-562. New York: Springer.
- Claro, S., Paunesku, D., & Dweck, C. S. (2016). Growth mindset tempers the effects of poverty on academic achievemen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3(31), 8664-8668.
- Clifford, M. M., Fick, M., & Bennett, J. (1991). Motivational predictors of college achievement. In *AERA annual meeting*. 5, 108-120
- Clifford, M. M., Kim, A., & McDonald, B. A. (1988). Responses to failure as influenced by

- task attribution, outcome attribution, and failure tolerance.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57(1), 17-37.
- Conroy, D. E., Willow, J. P., & Metzler, J. N. (2002). Multidimensional fear of failure measurement: The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4(2), 76-90.
- Crum, A. J., Akinola, M., Martin, A., & Fath, S. (2017). The role of stress mindset in shaping cognitive, emotional, and physiological responses to challenging and threatening stress. *Anxiety, Stress, & Coping*, 30(4), 379-395.
- Crum, A. J., Salovey, P., & Achor, S. (2013). Rethinking stress: the role of mindsets in determining the stress respon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4), 716.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C. I., & Dweck, C. S. (1978). An analysis of learned helplessness: Continuous changes in performance, strategy, and achievement cognitions following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5), 451-462.
- Diener, E., Sapyta, J. J., & Suh, E. (1998). Subjective well-being is essential to well-being. *Psychological inquiry*, 9(1), 33-37.
- Diener, E. & Scollon, C. (2003). Subjective well-being is desirable, but not the summum bonum. University of Minnesota interdisciplinary workshop on well-being, Minneapolis, United States.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
- Dweck, C. S. (2000). Self-theories; Their role in motiv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Philadelphia: Psychology Press*.
- Dweck, C. S. (2006). Mindset: The new psychology of success. *New York: Random House*.
- Dweck, C. S., & Leggett, E. L. (1988).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9(2), 256-273.
- Dweck, C. S., & London, B. E. (2004). The role of mental representation in social development. *Merrill-Palmer Quarterly*, 50(4), 428-444.
- Emmons, R. A., & Diener, E. (1986). Influence of impulsivity and sociability o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211-1215.
- Feldman, S. S., & Elliott, G. R. (Eds.). (1990).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
- Guilamo Ramos, V., Jaccard, J., Dittus, P., & Bouris, A. M. (2006). Parental expertise, trustworthiness, and accessibility: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risk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5), 1229-1246
- Gunderson, E. A., Gripshover, S. J., Romero, C., Dweck, C. S., Goldin Meadow, S., & Levine, S. C. (2013). Parent praise to 1 to 3 year olds predicts children's motivational frameworks 5 years later. *Child development*, 84(5), 1526-1541.

- Haimovitz, K., & Dweck, C. S. (2016). Parents' views of failure predict children's fixed and growth intelligence mind-sets. *Psychological science, 27*(6), 859-869.
- Haimovitz, K., Wormington, S. V., & Corpus, J. H. (2011). Dangerous mindsets: How beliefs about intelligence predict motivational change.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6), 747-752.
- Hartos, J. L., & Power, T. G. (2000). Association between mother and adolescent reports for assessing relations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4), 441-450.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enderson, V., & Dweck, C. S. (1990). Achievement and Motivation in Adolescence : A New model and Data.
- Hicks, C. M., Liu, D., & Heyman, G. D. (2015). Young children's beliefs about self disclosure of performance failure and succes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3*(1), 123-135.
- Hong, Y. Y., Chiu, C. Y., Dweck, C. S., Lin, D. M. S., & Wan, W. (1999). Implicit theories, attributions, and coping: A meaning system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3), 588-599.
- Jacobs, J. E., & Eccles, J. S. (1992). The impact of mothers' gender-role stereotypic beliefs on mothers' and children's ability percep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6), 932.
- Kamins, M. L., & Dweck, C. S. (1999). Person versus process praise and criticism: implications for contingent self-worth and cop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5*(3), 835.
- Kapur, M. (2008). Productive failure. *Cognition and instruction, 26*(3), 379-424.
- Kapur, M., & Bielaczyc, K. (2012). Designing for productive failure.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21*(1), 45-83.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arson, R. W., Richards, M. H., Moneta, G., Holmbeck, G., & Duckett, E. (1996). Changes in adolescents' daily interactions with their families from ages 10 to 18: Disengagement and transform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2*(4), 744.
- Lee, J. Y. (2008). The developmental change of adolescents' psychological distance to their parents and perception of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3*(2), 99-116.
- Levin, K. A., & Currie, C. (2010). Family structure, mother child communication, father child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A cross sectional multilevel analysis. *Health Education.*
- Levinthal, C., Kuusisto, E., & Tirri, K. (2021). How Finnish and Portuguese parents' implicit beliefs about learning actualize at home. *In Frontiers in education, Vol. 6*, 100.
- Licata, M., Kristen, S., & Sodian, B. (2016).

- Mother-child interaction as a cradle of theory of mind: the role of maternal emotional availability. *Social Development*, 25(1), 139-156.
- Manalo, E., & Kapur, M. (2019). The role of failure in promoting thinking skills and creativity: New findings and insights about how failure can be beneficial for learning.
- Moorman, E. A., & Pomerantz, E. M. (2010). Ability mindsets influence the quality of mothers' involvement in children's learning: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6(5), 1354.
- Mueller, C. M., & Dweck, C. S. (1998). Praise for intelligence can undermine children's motiva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33.
- Muenks, K., Miele, D. B., Ramani, G. B., Stapleton, L. M., & Rowe, M. L. (2015). Parental beliefs about the fixedness of ability.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41, 78-89.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 Scheier, M. E., & Carver, C. S. (1987). Dispositional optimism and physical well being: The influence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on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55(2), 169-210.
- Orrego, V. O., & Rodriguez, J. (2001).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college adjustment: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and conflictual independence o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1(3), 175-189.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5), 579-600.
- Pomerantz, E. M., & Dong, W. (2006). Effects of mothers' perceptions of children's competence: the moderating role of mothers' theories of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2(5), 950.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Tao, V. Y., Li, Y., & Wu, A. (2021). Do not despise failures: students' failure mindset, perception of parents' failure mindset, and implicit theory of intelligenc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37(2), 375-389.
- Zeng, G., Hou, H., & Peng, K. (2016). Effect of growth mindset on school engag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nese prim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resilience. *Frontiers in Psychology*, 7, 1873.
- 논문 투고일 : 2022. 06. 19
1 차 심사일 : 2022. 06. 29
2차 심사일 : 2022.. 07. 27
3차 심사일 : 2022. 08. 09
게재 확정일 : 2022. 08. 14

Is Does Failure Mindset Transmitted through Generations?: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Happiness and Mother-Adolescent Open Communication

Jiyu Jung

Hansaem Kim

Sujin Yang

Develop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ailure mindset of the mother and adolescent, along with the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happiness and mother-adolescents (first and second-year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open communication. For this study, self-reported data of 270 mother-adolescent dyads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Process macro Model 6.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mother's failure mindset directly predicted their adolescent's failure mindset. The mediating effect of the mother-adolescent open communication was significant, but the mediating effect of the mother's happiness was not significant. However, the mediation effect of the mother's failure mindset on the adolescent's failure mindset through mother's happiness and mother-adolescent open communication was significa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failure-is-enhancing" mindset of mothers improve their positive affect and parenting skills, which contributes to developing adolescent's belief system about failure. Putting the results together,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dentified the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of the failure mindset. Besides, the study results serve as a foundation for intervening on the adolescent's failure mindset by verifying the developmental mechanism of the failure mindset.

Key words : *failure-is-enhancing mindset, transmission transmit of failure mindset, happiness, mother-adolescent open communication*

부 록

실패 마인드셋 척도

◆ 다음 문항을 읽고,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과 가장 비슷한 선택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약 간 그 렇 지 않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실패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활용되어야 한다.	1	2	3	4	5	6
2	실패경험은 나의 학습능력과 성장을 촉진시킨다.	1	2	3	4	5	6
3	실패경험은 나의 수행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1	2	3	4	5	6
4	실패경험은 나의 학습능력과 성장을 저해한다.	1	2	3	4	5	6
5	실패경험은 나의 수행과 생산성을 악화시킨다.	1	2	3	4	5	6
6	실패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방지되어야 한다.	1	2	3	4	5	6